

場所의 象徵性 · 境界性과 遺蹟의 性格

郭 鍾 喆 *

목 차

I. 머리말

1. 慶州地域의 古代的 都市空間과 傳統的인 原空間
 - 1) 古代的 都市空間
 - 2) 傳統的인 原空間
2. 河川邊 · 溝(塚字)의 象徵性 · 境界性과 立地遺蹟 및 考古學的 現象의 性格
 - 1) 市場과 祈雨祭의 무대

- 2) 死體 放棄와 무덤에 묻히지 못한 사람 · 계층
- 3) 河川邊의 葬地
- 4) 祭場 · 宗教施設物의 立地 무대인 河川邊
- 5) 匠人集團의 集居地로서의 河川邊

II. 맺음말

< 요약 >

우리들의 일상생활속에 밀착되어져 온 장소의 상징성 · 경계성에 주목한다면, 고대의 유적 및 고고학적 현상의 성격과 배경의 일단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하였다.

사례로서는 고대의 경주지역의 월성해자유적에 보이는 死體放棄, 불교사원 건립이전에 이미 전통신앙의 성소였던 天鏡林, 유적형성 초기단계에는 소규모의 집단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천변에 정착했다고 보여지는 隍城洞 製鐵遺蹟을 들었다.

이들 유적 및 고고학적 현상의 입지와 성립배경에는 그 입지장소인 하천변, 구(溝, 塚字)등이 聖과 俗, 淸淨과 不淨이 교차하는 상징적 경계 장소였다는 점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 密陽大學校 博物館 學藝研究員

I. 머리말

지금 우리들에게는 대부분 잊혀져 버렸지만 한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場所에 대한 상징성·경계성 내지는 장소 감각 같은 것이 일상생활 속에 밀착되어져 있었던 모양이다. 즉,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공간)에는 여러 가지 경계가 있고, 그들 경계에 의해 구분된 크고 작은 경계영역 내에 둘러싸여 알게 모르게 우리네 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경계와 경계영역이 모두 명시적이며 가시적인 것은 아니다.¹⁾ 특히 상징적·사회적 경계가 그러하다. 가시적인 線으로 그어질 수 있는 地理的 境界와는 달리, 상징적·사회적 경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内外를 구분하는 경계이다. 이러한 경계는 특별한 표시물이 없어도 감각적으로 때로는 특정의 사실과 연계되어 인식되기도 하나, 본질적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속에 존재하는 관념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경계는 상징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런 표시물은 여럿 알려지고 있으며, 더욱이 지리적인 경계 및 표시물과 한데 어우러져 표현·인식되기도 한다.

한편, 일상생활의 장소를 상징적으로 경계지우는 것이 内外의 관념²⁾, (淸)淨·不淨의 관념이다. 사람에게는 그 자신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상징적으로 한정시키는 발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발상을 배태한 관념이 바로 内와 外의 관념이며, 경계의 안쪽(内)은 (淸)淨, 그 바깥은 不淨으로 인식된다. 또 이 内와 外를 경계로 사람들의 몸·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마을의 상징적 경계를 넘어서 오는 다른 마을·지역의 사람을 他界人·異郷人으로 경계하거나 不淨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한 예이다. 또 어떤 경계의 장소에 서게 되면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젖게 되거나 역으로 자신이 살던 곳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그런 경계의 장소에서는 외부로부터 부정한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막기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며, 동리매·동리추방처럼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이 경계의 장소에서 외부로 보내어진다.

그런 한편으로, 이 경계의 장소는 일상생활의 세계와 바깥세계를 이어주는 回路와 같은 곳으로, 그 바깥인 他界는 무서우며 疾病·災害, 魔性的의 세계로 인식된다³⁾. 그래서, 보통은 특별한 어떤 느낌을 가지지 않고 그곳을 지나치지만, 의식해서 보게 되면 갑작스레 이상한 공포감

1) 垂水稔, 1990 『境界の構造』名著出版

2) 鳥越皓之, 1976, 「集落・町内の境界(序)-地域集團にみる内と外の觀念-」『ソレオロジ』第21卷 2號

3) 山野正彦, 1985, 「日常景觀のなかの恐怖の場所-墓地と閻魔堂-」『生と死の人類學』講談社

표1. 상징적·사회적 경계장소

경계구분	경계장소	관련민속예	관련고고·문헌자료
사람몸의 안과 바깥	눈, 코, 입, 귀, 성기, 항문	전통적인 질병	
집안의 안과 바깥	불단(佛壇), 부엌, 안방	관, 문의 부적, 부엌의 조왕신, 대문의 부적,	수혈건물지내의 石柱(?)-경기도 광주 미사리유적, 대전 둔산유적
집의 안과 바깥	문, 벽	각종의 금기·	
택지내의 안과 바깥	변소, 우물	속담·전설 등	
택지의 안과 바깥	울타리, 담장, 대문, 溝		
주거역·마을·도성 및 도시·지역사회의 안과 바깥*	마을 입구, 거주역과 耕地域의 경계, 湧水地, 논의 水口, 성벽·성문, 環濠, 壕字, 橋, 큰 나무 아래, 神이나 악령을 만난 곳, 市場, 목욕탕, 술집과 遊廓, 死刑場, 火葬地, (共同)墓地, 寺院 등의 종교신앙지, 도로, 갈림길(삼거리, 사거리), 고개, 山入口, 山頂(分水嶺), 河川과 川邊, 中洲, 池沼같은 저습지, 津, 浦, 동굴, 谷, 절벽위, 廣場의機能場所	· 다리밧 · 하천변의 기우제 · 바닷가의용왕제 · 서낭당과 당산제, 동신제, 부락제 · 성문밖의 사형장 · 마을 입구의 장승, 솟대, 선돌, 거북, 나무, 숲, 林藪(우실) · 거리제 등	· 해안절벽의 제사 유적 - 부안죽막동유적 등 · 산정의 제사유적-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등 · 해자·연못·하천변의 死體放棄-경주 월성해자유구, 안압지, 익산머루사지 서쪽 연못유구 · 하천변의 제철유적-경주황성동 유적 · 문헌자료-고구려閔中王의 동굴 무덤, 경주狼山에 대한 聖所 관념과 벌채금지, 山川제사, 荒川언덕위에서 귀신과 놀았던 鼻荊郎의 기사, 蘇塗 등

* 이들 경계장소 가운데에는 마을간, 지역사회간의 경계에 위치해 그 각각의 영역범위를 아는데 참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 環濠·溝·壕字 등은 마을이나 지역사회 내부에 있어서 계층분화를 나타내는 威信施設物로서의 상징성도 지니고 있다.

이 엄습해오며 오싹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곳도 있다. 공동묘지도 그러한 곳의 하나이다.

이 경계의 장소는 더욱이 국가, 마을, 집단, 개인을 재해·질병으로부터 지켜주고 안전을 보호해주는 자연신·조상신이 살고 있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앞서의 질병·재해·不淨·魔性の 세계라는 인식과는 상반되게 성스러운 장소로 인식되는 兩面性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곳은 국가·마을 차원의 연중행사나 제사를 지내기도 하며, 祭儀·宗教 관련시설물이 세워지거나 일반인의 출입금지, 나무벌채나 개간의 금지와 같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 경계장소는 본래 주인없는 장소이거나 마을 공동소유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람들의 관념의 변화나 사회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그 존재양상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개간해서 耕地化하거나 墓地·寺院 등으로 바뀌어가는 경우가 그러한데, 이 변질과정중에 마을·집단·계층간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⁴⁾.

이상과 같이 이 상징적·사회적 경계장소는 일상생활의 세계와 다른 세계(他界), 생과 사, 이승과 저승, 문화와 자연(야성), 정착과 이동(유랑), 농경풍요와 황폐 멸망과 같이 兩面的이자 多義的인 image가 중첩되는 곳이다. 표1은 이러한 상징적·사회적 경계장소로 일컬어지는 곳을 한데 모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관념속에 밀착되어온 장소의 상징성·경계성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고대의 유적 및 고고학적 현상의 성격과 그 배경의 일단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발굴조사 성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문헌자료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경주지역의 고대 유적 및 고고학적 현상의 일부를 선택·검토하였다.

1. 慶州地域의 古代的 都市空間과 傳統的인 原空間

신라의 왕경이었던 경주지역에서 장소의 상징성·경계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주지역의 제장소를 왕경·도성으로 인식한 이후에 채택된 2차적 형성장소, 즉 고대적도시 공간과 그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온 장소 原空間, (母空間) 2자로 나눌 필요가 있다.

4) 網野善彦, 1987, 「境界領域と國家」『日本の社會史 第2卷 境界領域と流通』岩波書店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글의 검토대상인 후자, 즉 경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져 온 장소, 특히 하천변, 해자의 상징성·경계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古代的 都市空間

신라의 왕경이었던 경주지역이 古代를 전후한 시점에 어떠한 경관 내지는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 다만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적으로 변화해오는 과정에서 경주지역은 신라의 왕경으로 인식되게 되고, 더 나아가 條坊制의 채용 등을 계기로 새로운 공간요소가 부가·융합되어 이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모습, 즉 고대적 도시경관으로 창출되어져 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새로이 창출된 고대적 도시를 표현하는 장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상정된다.

- ① 流路가 북쪽으로 치우쳐 고정되어 있어 본래의 모습에 많은 人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北川.
- ② 中國式 도성제의 원리하에 구획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王宮 및 官廳, 도로유구 그리고 東西南의 官市(場).
- ③ 불교의 성행이 배경일 뿐만 아니라⁵⁾ 居住域과 墓域의 공간분리라는 배치원리에 기초해 상당수가 평지(경주의 扇狀地面)에서 주변 산야로 이동배치되었을 것으로 상정되는 王陵.
- ④ 일반민중을 위한 기도사가 아니고, 국가 혹은 王室에 의해 건립되고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주장되는 官寺인 분황사·황룡사 등의 존재.
- ⑤ 중국 宋代의 도시처럼 고대의 경주에도 있었을 것으로 상정되나 아직 그 실체가 분명치 않은 祝祭·遊興·娛樂을 향상화·일상화하는 遊廓이나 술집과 같은 惡所의 존재 등.

2) 傳統的인 原空間

한편, 이와 같은 새로운 고대적 도시 공간이 창출되더라도 이전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부터 양성되어져 온 原(母)空間的 要素가 한꺼번에 그리고 모두가 소멸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이 형성된 도시적 공간과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출되었을 것이다. 원래 도시란 새로이 완성된 공간으로 창출되더라도 도시 탄생 이전의 原空間이 그 모체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까지도 새로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 도

5)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일지사

시주민은 原空間의 image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규제되는 습성을 갖는다.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전통적 형성장소, 즉 原空間의 要素는 다음과 같다.

- ① 전통적으로 거주역과 分離近接하는 형태로 조성되었을 고분공원, 월성로 고분군, 황성동 분묘 유적군 등과 같은 平地의 墓域의 존재.
- ② 月城垓字와 文獻記錄에 보이는 死體放棄.
- ③ 西川·南川邊의 민간신앙터인 前佛七處伽藍之墟의 존재.
- ④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西川邊 匠人集團의 集居地-隍城洞製鐵遺蹟.

그런데 이들 전통적 형성장소 가운데 특히 後3者は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그 입지하는 위치가 西川·南川邊의 沖積地이거나, 王宮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月城주변의 垓字(溝)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河川邊, 溝는 전통적으로 상징적 경계장소로 인식되는 곳이며, 주인 없는(無主) 장소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는 葬地, 祭場이나 宗教施設物이 입지하거나, 匠人집단의 거주지가 되기도 하며 민간 市場이 서거나 祈雨祭가 행해지기도 한다. 더욱이 國家의 救濟施設이 입지하거나 水害의 완충지가 되기도 하며 近代都市가 성립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河川邊·溝(垓字)와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상징성·경계성의 문제와 관련된 경주지역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河川邊·溝(垓字)의 象徵性·境界性과 立地遺蹟 및 考古學的 現象의 性格

1) 市場과 祈雨祭의 무대

고대에는 주요물자의 유통이 국가의 징수와 재분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⁶⁾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물자의 유통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대량의 물자가 방출되지 않아 상업 그 자체가 활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상행위의 장소도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다. 삼국사기 등의 문헌기록에 보이는 東西南의 시장이 당시 경주주민의 교역의 장소라 하더라도 자연 발생적이라기 보다는 관 주도로 설정되어 주민생활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고대 도시적 정비를 강하게 의식한 계획적인 배치일 가능성이 높기 때

6) 이상구, 1994,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형태적 특성-형성의 배경을 중심으로-」『94서울학세미나-서울조성의 원형』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문이다.⁷⁾

한편, 국가 주도로 성립되는 官市와는 달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민간의 시장은 주로 하천 연변, 고개, 산과 평야의 경계부 등에 서는 경우가 많다.⁸⁾ 그리고 이런 곳은 대개가 교통의 結節點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들 시장 입지 가운데 특히 하천 연변은 본래 불안정한 토지라서 사람들이 늘 살지 않고 정기적으로만 모이는 상징적 경계장소이기도 하였다.

日本の 古代·中世에는 무지개(虹)가 생기는 곳에 시장을 세우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⁹⁾ 이를 통해 시장이 俗界와 他界의 경계장소임을 알 수 있다. 시장은 소유자와 그 혼을 포함한 소유물과의 주술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淸淨의 場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나 物資는 俗界와 인연이 끊어진 神佛의 세계에 들어온 神物·佛物이 되며 비로소 상품으로서 교환하는 것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믿는다. 그런 한편으로 시장은 물자교환뿐만 아니라 男女가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자유로이 사귀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시장은 상징적 경계장소라서 세속권력은 시장에 있어서의 관습은 인정하고 통상의 주종관계와는 다른, 이질적인 직할·지배하에 두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봄~여름의 전통적인 가뭄에 대해 祈雨를 위한 국가·민간차원의 집단 행위의 하나로 기존 시장의 장소를 옮기는 移市(遷市·徙市)가 있다.¹⁰⁾ 우리나라에서 移市에 관한 기사는 신라 진평왕 50년(628년)부터 보이며 이후 고려·조선시대에도 계속 확인된다. 봄의 파종·이식기에 계속 가물게 되면 근신 근조하기 위해 주로 음양오행설에 따라 시장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옮겨지는 장소가 거리나 하천변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때 시장에서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만 거래하였다.

- 경남지방의 移市는 장내비기라 해서, 과거에는 넓은 강바닥으로 옮겨서 川上祭·霽祭·土龍祭를 지내기도 하였다.
- 밀양의 큰 가뭄때 바짝 마른 南川江가에 移市하는 날은 일찍부터 場이 섰다.(이상 慶南의 사례)¹¹⁾

7) 고대의 경주에 형성된 고대적 도시와 東西南시장의 설치가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인지 유통경제의 발달 선상에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도시라는 성격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도시의 형성은 거대한 소비집단의 성립을 의미한다. 그리고 實物 貢納만으로 도시내의 필수물자 모두를 자급자족할 수 없는 경제구조였다고 본다면, 설명 보완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유통경제에 의존했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8) 北見俊夫, 1985, 「市とその生態」『日本民俗文化大系』11.

9) 勝保鎮夫, 1986, 「賣買·質入れと所有觀念」『日本の社會史』4. 岩波書店

10) 裴桃植, 1993, 「韓國의 祈雨風俗에 관한 研究」『韓國民俗의 現場』集文堂

11) 註10의 문헌

한편, 祈雨풍습은 지금도 민간에서는 전승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그 祈雨祭를 지내는 장소 가운데 하나가 하천변이라는 사실은, 移市와 함께 고대 이래의 기우제 전승으로 보여지며, 그 배경에는 하천변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경계성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하천변이 無主의 장소임과 동시에 聖과 俗이 교차하는 경계장소라는 상징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祈雨행위와 하천변과 관련해서 또하나 주목되는 것이 국가차원의 기우행위의 하나로써 방치된 사체를 묻어주는 엄격매자(掩骼埋骸)이다.

2) 死體放棄와 무덤에 묻히지 못한 사람·계층

최종성¹²⁾은 고려~조선시대에는 祈雨와 관련해, 매장되지 않은 채 나뒹구는 시체를 수습하여 묻어주는 국가차원의 기우관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헌기록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 고려·조선의 통치자들은 가뭄의 원인을 苛斂에 의한 백성의 도탄, 불공정한 獄事, 사체의 방기, 통치자 자신의 不德政治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산천과 종묘 등에 대한 祈雨제사를 지냈으며, 여러 가지 근신·금기행위를 실천하였다. 시장을 옮기고(移市), 정전을 피하고(避正殿), 평소의 음식을 줄이고(減常膳), 음악을 멈추고(輟樂), 노천에서 정사를 보았으며(露坐廳政), 억울한 죄수를 방면하고, 부역과 세금을 줄이고, 궁핍한 사람을 구휼하였으며, 버려진 시체를 묻어주는 행위를 통해 하늘의 경고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降雨를 기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국가 차원의 기우관행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완전히 썩어 백골이 된 뼈(骼)를 가리고(掩), 부패중인 사체(骸)를 묻는(埋) 행위인 엄격매자의 전제가 되는 死體放棄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차원의 엄격매자 행위가 문헌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 靖宗2년(1036년) 5월 기사로 알려지고 있다.¹³⁾ “관리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봄부터 비가 적게 내렸으니, 청컨대 古典에 따라 억울한 죄수들을 심리하고 궁핍한 백성들을 구휼하며 버려진 뼈를 덮고 시체를 매장하고, 먼저 북교에서 비와 구름을 일으킬 수 있는 악, 진, 해, 독과 명산 대천에 기원하고 다음에는 종묘에서 매7일에 한 번씩 빌되, 그래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2) 최종성, 1997, 「國行祈雨祭와 民間祈雨祭의 비교연구-시체처리와 제물처리를 중심으로-」 『宗敎學研究』 제16집

13) 註12의 문헌

악, 진, 해, 독에 처음과 같이 기원하며, 가뭄이 심해지면 우제를 지내고 시장을 옴기고, 일산과 부채를 금하고, 가축의 도살을 금하며, 관가의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 하니 왕이 제안을 받아들여 그것을 좇았으며, 정전을 피하고 일상적인 반찬수를 줄였다.(有司秦自春小雨 請依古典 審理冤獄 賑恤窮乏 掩骼埋胔 先祈岳鎮海濱諸山川能興雲雨者於北郊 次祈宗廟每七日一祈 不雨 環從岳鎮海濱如初 旱甚則修雩 徙市 禁屠殺 勿飼官馬 以教王從之 避正殿減常膳) 『고려사』世家6 靖宗2년 5월

이러한 내용은 肅宗 6년(1101년) 4월 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朝鮮王朝實錄』과 『祈雨祭謄錄』에 각각 19회, 13회, 총 32회 기록이 보이고 있어¹⁴⁾, 고려~조선시대를 통해 엄격매자의 대상이 된 사체방기가 꽤 있었다는 사실을 엿보이게 한다.(표2)

표2. 엄격매자에 대한 『朝鮮王朝實錄』과 『祈雨諸謄錄』의 기록(註12의 문헌에서 재인용)

조선왕조실록	기우제등록(인조·고종)
태종4년 5월 신유(권7), 태종11년 5월 경진(권21), 세종8년 4월 경오(권32), 단종2년 7월 경묘(권11), 성종22년 4월 정묘(권252), 연산군8년 4월 병인(권43), 중종34년 6월 무신(권91), 중종35년 5월 신축(권93), 중종39년 4월 기축(권102), 명종15년 4월 임술(권26), 선조30년 4월 을해(권87), 선조32년 윤4월 기묘(권112), 선조34년 5월 을묘(권137), 선조39년 5월 신사(권199), 선조40년 4월 경신(권210), 광해군6년 3월 갑자(권76), 광해군7년 3월 경신(권88), 인조22년 4월 8일 을축(권45), 정조6년 4월 경오(권13)	丙子四月十六日(인조14, 1636), 己卯四月十五日(인조17, 1639), 辛巳四月初八日(인조19, 1641), 乙酉四月初三日(인조23, 1645), 乙丑四月十三日(효종2, 1651), 壬辰四月初三日(효종3, 1652), 癸巳四月二十八日(효종4, 1653), 乙未五月二十三日(효종6, 1655), 丁酉四月十九日(효종9, 1657), 戊戌五月初四日(효종9, 1658), 乙亥四月十九日(효종10, 1659)

※ 註12 문헌제시의 조선왕조실록 성종2년 5월 정유기사에서는 엄격매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외시켰다.

더욱이 依田千百子が 제시한 고려~조선시대의 사체방기 관련기사¹⁵⁾를 통해서도 사체방기 사례가 32에나 더 확인된다.

① 고려시대

· 『宣和奉使高麗圖經』卷三十二 雜俗一

14) 註13의 문헌

15) 依田千百子, 1980, 「朝鮮の葬制と他界觀」 『日本民族文化とその周邊』 歴史・民族編

「其疾病，雖至親不親樂 至死殯不拊棺，雖王與貴冑，亦然，若貧人無葬人 則露置中野，不封不植，委螻蟻烏鳶食之，衆不以爲非」

- 『宋史』卷四八七 高麗傳「貧者死則露置中野」
- 『高麗史』卷三，成宗七年十月條
- 『高麗史』卷十三，睿宗五年四月甲戌條

② 조선시대

표3. 조선왕조실록의 기타 사체방기사례(註15의 문헌)

	記 載 個 所	備 考
死體放棄	太宗10年5月(卷19) 太宗15年6月(卷29) 世宗30年11月(卷122) 燕山君4年7月(卷30) 中宗17年正月(卷43) 明宗 3年正月(卷47) 宣祖27年正月(卷47) 宣祖30年10月(卷93)	城中 城中 漢城 咸鏡, 平安道 安城
질병사망자의	世宗 9年 7月(卷37) 世宗30年11月(卷108) 燕山君日記 2月 2日(卷12) 成宗22年 3月(卷250) 明宗 2年 2月(卷4) 仁祖23年正月 肅宗25年正月(卷32) 肅宗46年 7月(卷62)	漢城 漢城 咸鏡南道
死體放棄 국가에의해 인된 死體 放棄	太宗17年 3月(卷33) 成宗16年 6月 宣祖26年(卷43) 宣祖改修26年10月(卷27) 宣祖28年(卷60) 光海君12年 6月(卷153) 仁祖 2年 6月(卷6) 英祖29年 6月(卷6) 英祖36年 2月(卷95) 正宗23年正月(卷51)	

※ 영조36년 2월 기록은 청계천(당시 開川)의 준설작업(濬川)시 발견된 사체를 다른 곳에 묻어주는 기사이다.¹⁶⁾

기우관행이었던 避正殿, 減常膳, 죄수방면과 옥사재심이 삼국시대부터 있어왔음을 『삼국사기』

한편, 20세기에 와서도 사체방기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平南 大尼面 尼西里에서는 천연두로 사망한 어린 아이의 신체를, 平南 孟山郡 東面, 京畿道 振威郡에서도 아이의 사체를 방기한 예가 있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고려~조선시대(더 나아가서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사체방기사례는 65예 이상 확인되고 있어 고려~조선시대에는 사체방기가 의외로 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고려~조선시대 이전인 통일신라~삼국시대에는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통일신라~삼국시대에도 사체방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방기사체에 대한 매장행위인 엄격매자와 함께 국가차원의

16) 엄정섭, 1998, 「조선후기 漢城府 濬川의 시행」 『서울학 연구』11.

의 신라, 고구려, 백제본기 각각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⁷⁾ 더욱이 엄격매자를 포함한 이들 국가 차원의 기우관행이 실은 중국의 祀典體係를 따른 것임을 감안한다면¹⁸⁾ 엄격매자도 통일신라~삼국시대에도 있어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엄격매자의 사체방기도 이 무렵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避正殿 기사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제4, 진평왕7년 3월
『삼국사기』권10, 신라본기 제10, 흥덕왕

減常膳 기사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제4, 진평왕7년 3월
『삼국사기』권10, 신라본기 제10, 흥덕왕7년
『삼국사기』권19, 고구려본기 제7, 원평왕5년

죄수방면, 옥사재심 기사

『삼국사기』권2, 신라본기 제2, 내해왕6년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제4, 진평왕7년 3월
『삼국사기』권10, 신라본기 제10, 흥덕왕7년
『삼국사기』권23, 백제본기 제1, 다루왕28년
(이상 註12의 문헌에서 재인용)

통일신라~삼국시대에 사체방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고대의 문헌기록과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三國史記』등의 고대 기록에 보이는 사체방기 내지는 유사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太宗武烈王七年秋八月二日「……以四支解投其尸於江水」(사지를 찢어 시체를 강물에 던졌다) 『三國史記』新羅本紀
- 烽上王九年八月「倉助利諫曰, 天災荐至, 年穀不登, 黎民失所, 壯者流離四方, 老幼轉乎溝壑……」(老幼들은 구획에 굴러 떨어지니…) 『三國史記』高句麗本紀

17) 註12의 문헌에서 재인용

18) 註12의 문헌. 방기사체에 대한 엄격매자는 유교적 통치의 전거라 할 수 있는 『禮記』月令, 孟春之월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 東川王八年秋九月「太后于氏薨 太后臨終遺言曰, 妾失行, 將阿面目見國壤於地下, 若羣臣不忍於溝壑, 則請葬我於山上王陵之別……」(태후가 임종하며 가로되……만일 군신이 차마 나를 구획(구렁텅이)에 버리지 아니하려거든……)『三國史記』高句麗 本紀
- 後漢書 滌傳의 예처럼 疾病者, 사망자가 나면 그 집을 버리고 新居를 만든다는 기사.
- 백제의 왕자 翽岐가 일본에 와 있을 때, 그 왕자의 아들과 從者가 사망하자 그들 일행은 死者를 기피하고 두려워서 死者를 그대로 남겨두고 다음날 다른 집으로 轉居하므로 어쩔수 없이 朝廷에서 사람을 보내어 장사를 치렀다는 기사(日本書紀 卷二十四皇極天皇 元年條)¹⁹⁾

한편, 고대의 사체방기는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신라왕궁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경주 月城의 塚字에서는 총 20구의 인골이 검출되었다.²⁰⁾(그림1) 이들 인골들은 월성해자 라지점140E30, 150E20·30, 220W10 Trench의 흑색재층(재층)~빨층(출토토기에서 보아 4세기후반~5세기전반)에서 비교적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그리고 보고문의 기술-이들 인골은 그 출토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매장된 것이 아니라 시체들이 한꺼번에 던져 넣어진 것으로 여겨진다.-처럼 적어도 정식의 매장이 아닌 사체방기로 보여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40세 전후 2명, 유아3~4명을 제외한 인골 대부분이 14~21세 전후라는 性的·年齡的구성, 그리고 3구의 인골에서는 頭頂骨, 大腿骨에 刺痕이 있는 점 등에서 보아 自然死라기 보다는 전쟁·기근·전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하의 사망으로 보인다. 또, 시굴조사에서는 성격불명의 木架構 부근의 인골 옆에서 철모1, 철도자2, 토기편 다수가 출토되었고, 본조사에서는 인골15구와 함께 동물뼈-개, 멧돼지, 사슴, 말 등-가 산된 상태로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보아 사체방기와 함께 어떤 형태의 간단한 제사나 供養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한편, 전북익산 미륵사지의 서쪽연못(통일 신라시대 초기, 714년 이전)에서도 2구의 인골이 검출되었다.²¹⁾(그림2) 연못내의 표토 200~240cm아래의 흑갈색유기질 점토층에서 검출되었는데, 각각 25세 전후의 남성과 여성의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주월성 해자의 예처럼 역시 사체방기로 보인다.

19) 註15의 문헌

20) 崔夢龍·安巨煥, 1985, 「六, 出土人骨」『月城塚字試掘調査報告書』

崔夢龍·千命薰, 1990, 「VI. 출토사람뼈」『月城塚字發掘調査報告書 I』

21) 노기환, 1993, 「미륵사지 연못지 발굴조사 중간개보」『文化財研究所學術研究發表論執』7.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1996, 『彌勒寺 發掘調査報告書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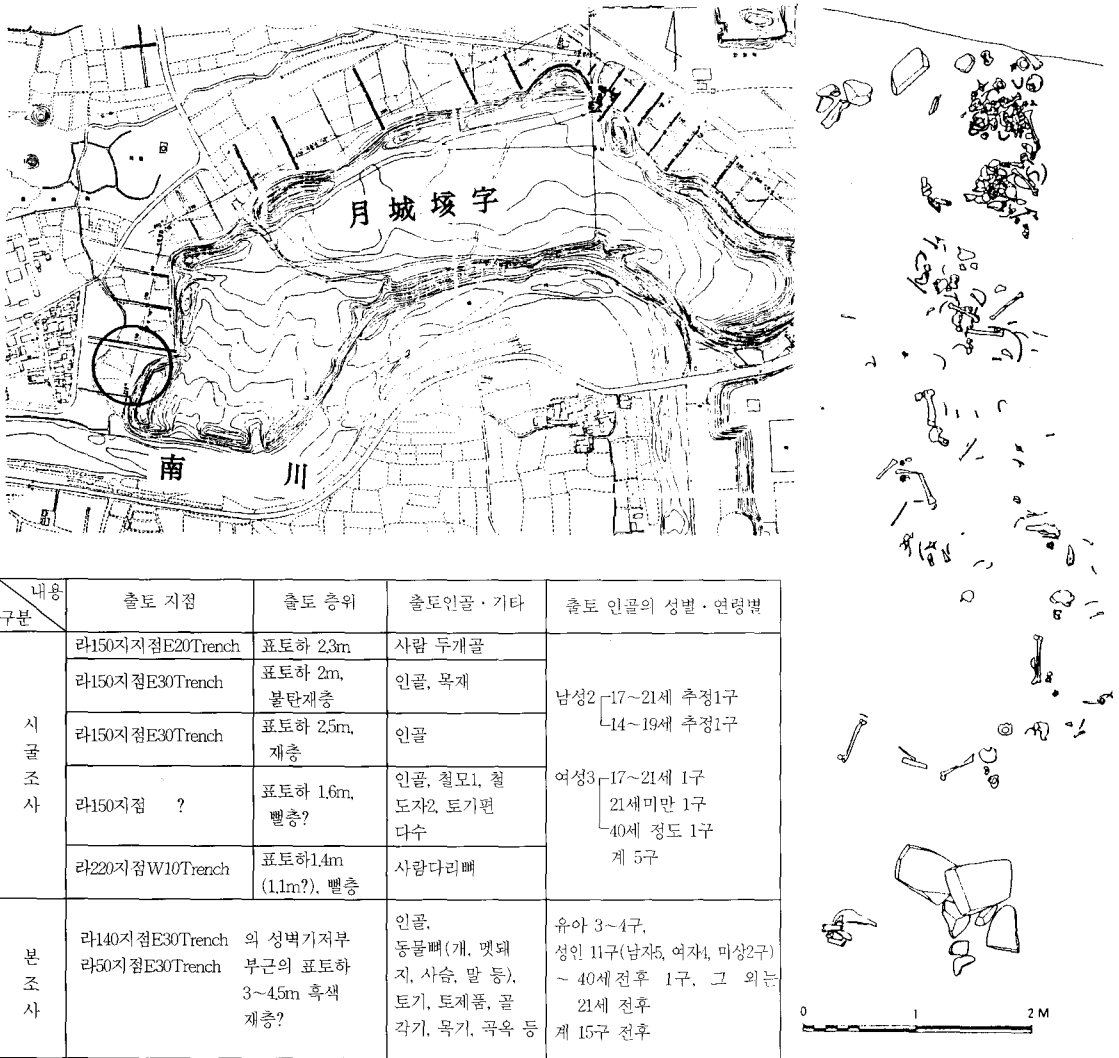


그림1. 慶州 月城塚에서 확인된 死體放棄人骨의 출토지점(좌, ○표)과 출토인골(우, 좌우 모두 註20의 문헌)

고대의 사체방기사례는 일본의 古代~中世의 문헌기록과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하 사례를 열거한다.

- 森浩一에 의하면 平安京과 그 주변부의 在地集團의 묘지에는 3종류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사체방기였다고 한다.²²⁾(그림3)

22) 森浩一, 1970, 「古墳時代後期以降の埋葬地と葬地」『古代學研究』57을 山田邦和, 1996, 「京都の都市空間と墓地」『日本史研究』409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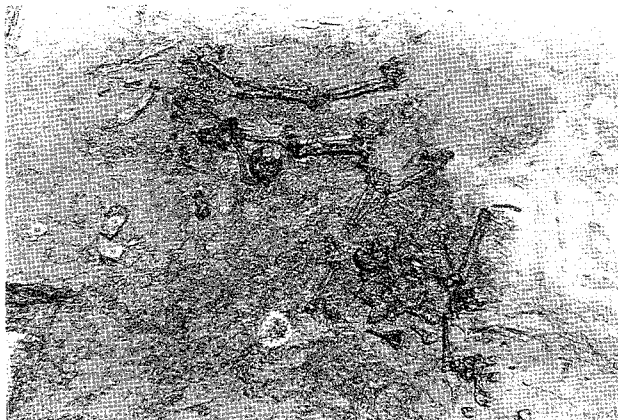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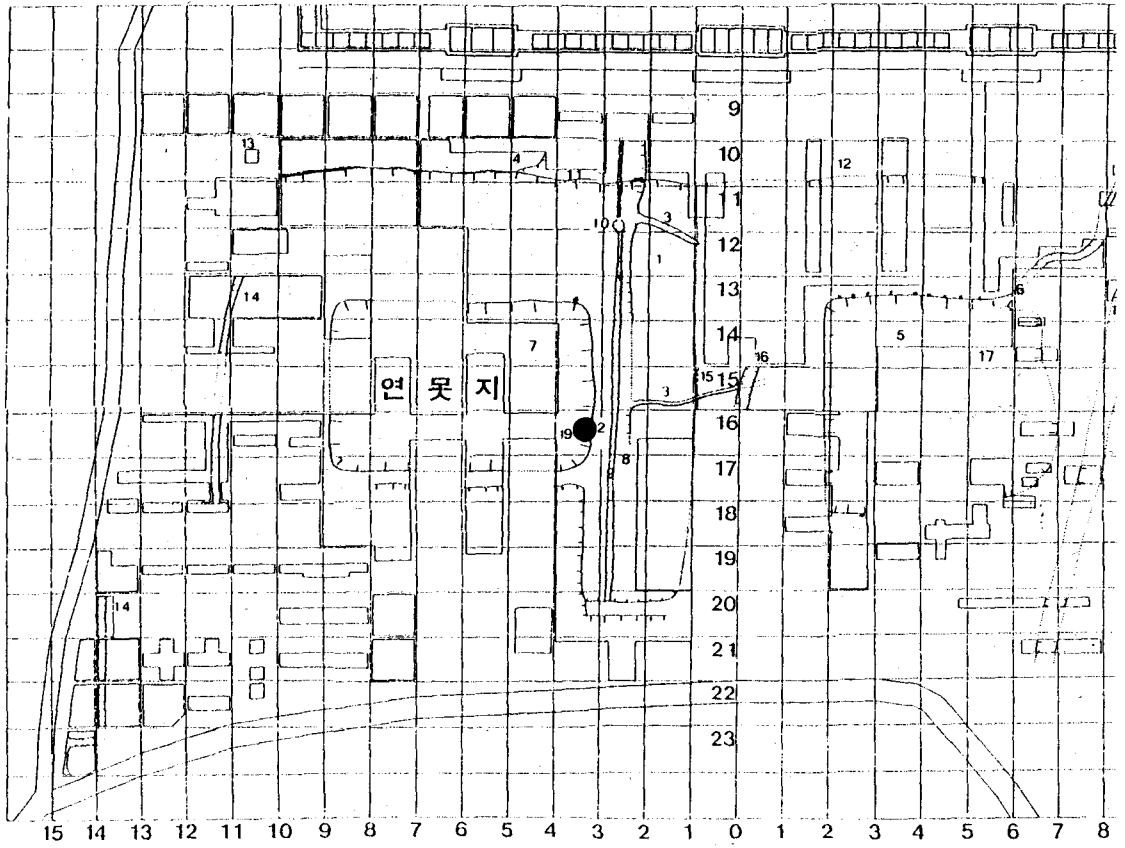


그림2. 益山 彌勒寺址 서쪽연못에서 확인된 死體放棄(상 : 사체방기 지점 ●표, 하 : 출토인 골, 상하 모두 註21의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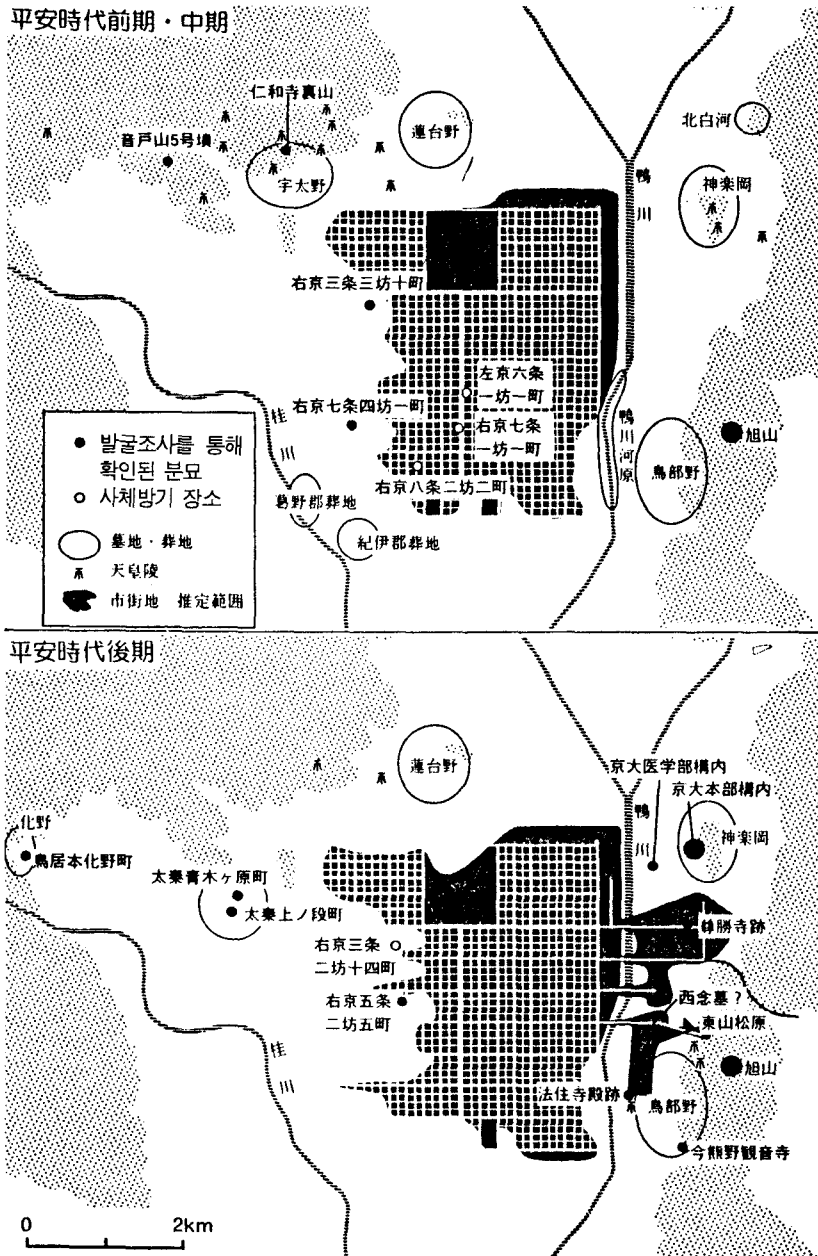


그림3. 日本 平安京(京都)의 死體放棄(○표, 註22의 山田 邦和 논문)

- 재지집단의 전통적인 매장지.
- 家側型 葬地(屋敷墓)~家단위로 소유토지에 사체매장.
- 사체방기~河原에 무질서하게 사체방기, 재지집단과 平安京都市民 쌍방 모두 이용.
- 承和 9년(842년)(嶋田及鴨河原等に 산란하는 5500구 이상의 髑髏소각기사.
- 平安京 右京 8條 2坊 2町の 서쪽의 西初負小路의 평안시대 전기의 流路에서 인간 두개골 출토.
- 同 左京 6條 1坊 1町 남서단의 溝에서 牛馬骨, 성인남성의 하악골, 「南無大日如來」銘墨書 木簡 출토.
- 同 右京 7條 1坊 1町の 남동단에서 다량의 牛馬骨, 미성년자의 두개골 하악골 출토(평안 시대 후기).
- 同 右京 6條 1坊 13町の 남쪽에서 鎌倉시대의 小河川에서 2구의 인간 두개골과 卒搭婆출토.
- 養和 연간(1181~82년)의 기근으로 平安京 左京에서만 42,300구의 사체방기.
- 평소에도 개(犬) 등이 인간의 사체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점.
- 平安京 待賢門에 방기된 사체의 머리를 여자가 탐욕스럽게 먹어치운다든지, 宮의 각 門 부근에 누워있는 병자를 습격해 먹었다는 기사.
- 가난한 사람들의 시체가 도로에 방기되는 것이 드물지 않았다는 기사(今昔物語集 卷二八 第一七話).

한편, 日本의 鳥取縣 氣高郡 青谷町 青谷上寺地遺蹟에서는 미생시대~고분시대 전기초두의 溝狀遺構內에서 사람의 全身骨格이 산란된 상태로 다수 출토되었다.²³⁾(그림4, 5) 이들 인골은 性別·연령별로 집중되는 양상도 보이지 않으며, 骨盤에 청동제 무기가 박혀있거나 左上腕骨에 금속제 무기의 흔적이 보이거나, 頭蓋骨의 刺突痕이나 胸椎와 手骨의 切痕 등이 확인되고 있어 경주월성 해자의 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 유적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계의 무문토기와 단조철부 등이 출토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사체방기 사례가 삼국시대 이전으로 더욱 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광주 신창동 유적의 저습지에서 검출된 인골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23) 鳥取縣 教育委員會, 1998, 『青谷上寺地遺蹟資料』



그림4. 日本 鳥取縣 青谷上寺址 遺蹟에서 확인된 死體放棄(상하 모두 註23의 문헌)



그림5. 日本 鳥取縣 青谷上寺址 遺蹟의 放棄
死體 各部分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흔
적(△표, 모두 註23의 문헌)
좌상 : 頭蓋骨의 刺突痕
좌중 : 骨盤에 박혀있는 靑銅製 武器
좌중하 : 手骨의 切痕
좌하 : 胸椎의 切痕,
우상 : 骨盤에 박혀있는 靑銅製 무기
우하 : 左上腕骨에 박혀있는 金屬製
武器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전역에서 사체방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발굴조사와 문헌기록에서 볼 때 사체방기는 적어도 삼국시대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시대까지도 소급가능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儒禮가 제도화된 조선시대에도 사체방기는 전통적인 葬法의 하나로서 이어져 내려왔으며, 15~17세기 무렵에는 사체방기가 지방 뿐만 아니라 도성에서도 확인되고 있었다. 그러나 儒禮가 점차 일반화해가면서 유교적인 조상숭배의 관념이 일반민중에게 침투해가면서 원시적인 死靈에 대한 畏怖의 관념도 변화하고 사체방기의 습속도 소멸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사체방기의 대상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전염병 등의 질병에 의한 사망과, 빈곤한 계층, 기아에 의한 아사자, 무연고 사망자, 政變 희생자, 전쟁·전투에 의한 사망자, 노예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他處人(異鄉人, 非在地人) 내지는 流浪民, 聖地 등에 暗葬되었으나 민간차원의 기우관행의 하나로 파헤쳐진 사체²⁴⁾ 등도 사체방기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사체방기는 모든 계층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非正常的인 사망의 경우는 계층을 불문하고 사체방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한편으로 항상적으로 사체방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계층 또한 있었던 것 같다. 즉 고려시대의 사체방기를 전하는 『高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宋史』高麗傳의 기사「若貧人葬人 則露置中野, 不封不植, 委螻蟻烏鳶食之, 衆不以爲非」, 「貧者死則露置中野」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상적인 사망의 경우라도 貧者계층은 사체방기의 주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본다면 埋葬이 일반화해가는 고대~고려·조선시대에도 무덤에 묻히는 사람 및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 및 계층이 존재하였고, 무덤에 묻힌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의 권력과 財富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사체를 방기하는 장소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河川邊, 溝나 塚字·流路, 연못, 道路邊, 城門근처, 家屋內, 山野, 숲 등이 알려지고 있다. 이는 결국 지금과는 다른 葬儀관념·葬法·死體관념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들 장소에 사체를 버리거나 그대로 내버려둠으로서 犬鳥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洪水 등에 의해 쓸려 내려가거나 해서 자연히 사체가 소멸되도록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葬法의 이면에는 장의에 관한 훌륭한 시설이나 의례가 없어도 사체방기 장소를 종교적 의미를 가진 장지로서 인식하는 관념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24) 단, 이 경우는 사체방기의 주요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한편 洗骨葬된 사체도 현상적으로는 사체방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뒤에 정식매장하는 2次葬의 과정중에 있으므로 사체방기의 사례로서는 일단 제외시켰다.

도성제의 정비와는 관계없이 이전부터 있어왔던 신라의 원공간적 요소였으며, 사체방기의 장소는 농업생산과 무관하며 거주지에서 떨어진 自然(野性)과의 경계가 되는 상징적 경계장소에 위치했다고 보여진다.

방기된 사체에 대한 葬法の 일단은 일본의 사체방기 사례 가운데에는 인골 가까이서 供養木簡·卒搭婆가 출토된 점에서 엿볼 수 있다. 鳥翼殿跡에서는 鎌倉시대 초기의 溝에서 인골 2개체분, 동물뼈, 建仁3年銘(1203년)供養木簡-(表面)「南無歸依佛 南無歸依佛 南無歸依法」(裏面)「建仁 三三十八得阿彌陀佛」-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방기된 사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靈魂供養이 행해졌음을 의미한다. 즉, 길가의 여기저기에 사체가 방기되어 있고 그에 대해 승려들이 공양하는 풍경이 연상된다. 이렇게 본다면 고대~중세에는 반드시 무덤에서 사자가 편히 쉰다는 관념은 그리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사자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사체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이며 육체가 없어짐으로서 魂이 他界로 간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처럼 마을 단위로 葬儀에 관한 상호부조도 없었으며, 마을 단위로 장의의 평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장의에의 참가여부는 死者와의 혈연관계 여부에 따라 정해졌으며, 전혀 관계없는 타인의 장의에 관여한다는 것은 死者에의 접촉으로 인식하여 기피하였다고 한다.²⁵⁾

한편, 우리나라의 고대 葬制를 검토한 宮原兎一은 사체방기는 死者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빈곤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⁶⁾ 그리고 이러한 사체방기의 습속은 에스키모, 북미 서부의 인디언, 시베리아 민족의 일부와 같은 수렵민 문화전통이 강한 민족에 널리 분포되고 있어, 北方系 수렵민 문화와 계통적으로 연결된다고 한다. 왕조실록에 사체방기의 습속을 野人(女眞)의 풍습과 같다고 한 기사는 이를 시사하는 것일 것이다.(왕조실록 권251, 성종 23년 3월조)

3) 河川邊의 葬地

河川邊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체방기의 무대이기도 하였으나 왕과 일반백성들의 正式埋葬地로서도 이용되었다.

25) 勝田至, 1988, 「中世の屋敷墓」『史林』71-3

26) 宮原兎一, 1951, 「朝鮮古代葬制について」『日本人類學會・日本民族學協會 第6回連合大會記事』를 依田, 1980에서 재인용.

河川邊이 왕의 장지로서 이용된 사례는 고구려에서도 볼 수 있다. 余昊圭(1992)에 의하면²⁷⁾ 고구려의 경우 谷·水·川·河로 표기되는 집단과 源(原)·澤·野 등으로 표기되는 집단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野는 특정지역의 평야를, 原은 川邊의 특정지역(왕의 葬地名)을 가리키며 壤과도 통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하천변(原川)이 왕의 장지로서 이용된 확실한 사례로서는 故國川原에 장사를 지낸 故國川王을 비롯해 中川王, 西川王, 美川王의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신라의 경주지역에서도 평지(선상지)에 위치하는 王墓級의 대형 封土墳의 서쪽 분포한계선이 四개에 근접·평행하고 있어 하천연변이 왕·귀족의 정식매장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경주 일대에 대한 상세한 지형분류와 지형발달사적인 연구사례가 없어 더 이상 언급하기는 어렵다. 장래의 과제로 남긴다.

한편, 고대의 경주에는 황성동 유적군의 분묘유적처럼 일반 백성들의 무덤도 하천연변에 조성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일본의 平安京에서도 확인되는데, 平安京에서는 하천연변도 평소부터 平安京에 거주하는 일반백성의 葬地이자 放牧地였던 모양이다.(871년의 반포 律令)

4) 祭場·宗教施設物の 입지무대인 河川邊

河川邊이 河川에 대한 國家祭儀의 祭場이었다는 사실은 『三國史記』祭祀志에 名山大川에 대한 大祀·中祀·小祀가 행해졌다는 기사가 있는 점에서 우선 엿볼 수 있다. 自然神·祖上神 숭배와 같은 土着信仰이 지배이념이었던 新羅上代에는 국가차원에서 토착신에 대한 제사를 매우 중시했다고 한다.²⁸⁾ 이점은 고구려, 백제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으로, 山川에 대한 제사기록이 곳곳에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하천변이 국가제사의 무대였던 것은 하천변이 상징적 경계 장소로 토착신앙의 聖所였던 점에 직접 유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신라의 토착신앙의 祭場으로 추정되는 『三國史記』阿道基羅條의 「前佛七處伽藍之虛」를 하천변이라는 장소의 상징성·경계성문제와 관련시켜 몇가지 검토해보고 싶다. 원사료를 제시한다.²⁹⁾

按我道本碑云……母謂曰此國于今不知佛法爾後

三千餘日鷄林有聖王出大興佛教其京都內有七處伽藍之虛

27) 余昊圭, 1992, 「高句麗初期那部統治體制的 成立과 運營」『韓國史論』 27

28) 崔光植, 1994, 「新羅 上代 王京의 祭場」『1994년도 新羅文化祭學術會議 新羅王京研究』

29) 註28에서 재인용.

一曰 金橋東 天鏡林(今興輪寺 金橋謂西川之橋 俗訛呼云松橋也 寺自我道 如基而中廢 至法興王 丁未草創 乙卯大開 眞興王畢成)

二曰 三川岐(今永興寺 如興輪開同代)

三曰 龍宮南(今黃龍寺 眞興王癸酉始開)

四曰 龍宮北(今芬皇寺 善德甲午始開)

五曰 沙川尾(今靈墓沙 善德王乙卯始開)

六曰 神遊林(今天王寺 文武王乙卯開)

七曰 婿請田(今曇嚴寺)

皆前佛七處伽藍之墟 法水長流之地 『三國遺事』3, 興法 3. 阿道基羅條

이 前佛七處伽藍之墟에 대해 이기백은 고대신앙에 있어서 신성지역으로 三韓시대에는 蘇塗³⁰⁾로, 崔光植은 樹木神·土地神에 대한 祭場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³¹⁾ 그리고 前佛七處伽藍之墟의 대부분이 王京의 서쪽, 그것도 南川과 西川을 끼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³²⁾ 이점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나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崔光植이 前佛七處伽藍之墟 가운데 天鏡林을 天神의 祭場으로 파악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³³⁾ 조선조 인조17년(1639)에 세운 阿道和尚事蹟碑에서 異次頓이 절을 세우려 한 天鏡林이 오랫동안 碑補하는 곳으로 전해 내려온 곳(皆曰此乃碑補所流傳萬葉……) 운운 하는 부분을 고유신앙의 聖所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同비문에 天鏡林이 天敬林으로 쓰여있어 天鏡林이 天敬 즉 天을 숭배하는 장소로 풀이하고 天鏡林을 특히 天神에 대한 祭場으로 해석하였다. 同 비문의 「其興龍敬林天降之基」도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여 崔光植의 해석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점은, 天鏡林이 당시 사람들에게 고유신앙의 祭場 내지는 聖所로서 인식되었던 배경에는 天鏡林이 河川邊에 위치한다는 장소의 상징성·경계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천부지, 자연제방과 배후습지와 같은 하천변의 토지는 홍수 범람의 피해를 입기 쉽고 유료가 변경되는 등 불안정한 토지였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인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장소감각 때문인지 하천변은 전통적으로 현실의 생활과는 괴리된 장소였고, 이곳에 입지한 天鏡林은 두려움과

30) 이기백, 1978, 「삼국시대불교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신라시대의 국가불교와 유교』를 註28의 문헌에서 재인용.

31) 註28의 문헌에서 재인용

32) 註28의 문헌

33) 崔光植, 1985, 「異次頓說話에 대한 新考察」 『韓國傳統文化研究』創刊號

신성함이 교차하는 상징성·경계성을 가진 특이한 장소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장소의 상징성·경계성에 주목한다면 天鏡林에 대한 불교사원의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반발은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동시에, 토착신앙의 聖所였던 天鏡林은 흥륜사나 황룡사 등과 같은 官寺의 건립이나 條坊制의 채택 등과 같은 고대적 도시경관 성립이전부터 있어 왔던 전통적인 在地社會의 原空間的 要素로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신라사회는 이전의 전통사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阿道和尚事蹟碑의 비문에 보이는 「皆曰此乃碑補所流傳萬葉」의 「碑補」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碑補, 즉 裨補는 風水地理와 관련되는 용어로 天鏡林의 성격의 일단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韓陽明(1994) 등에 의하면³⁴⁾ 풍수지리에서는 풍수지리적 공간인식에서 보아吉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는 인위적으로 吉局, 즉 길한 형국을 만드는 방법을 裨補壓勝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약하고 허한 곳은 보충(補充)하고 강하고 튀어나온 곳은 누름(壓勝)으로서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만들려하는 풍수지리적 대응이 바로 裨補壓勝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阿道和尚事蹟碑에 天鏡林이 오랫동안 碑(裨)補하는 곳으로 전해 내려온 곳 云云하는 풍수지리적 발상 및 대응이 기록되었을까.³⁵⁾ 이에 대해서는 天鏡林의 위치 및 존재형태, 그리고 비보압승물의 종류와 특성에서 그 답을 찾아질 것 같다. 풍수지리의 비보압승물에는 造山, 林藪, 寺, 搭, 佛, 池, 巨石, 古墳, 숫대, 당간 등이 있다고 한다.³⁶⁾ 그런데 事蹟碑의 비문에서처럼 天鏡林이 오랫동안 裨補하는 곳 云云의 비보압승 형태를 띠고 있는 데다가 天鏡林이 河川邊에 위치하고 있으며³⁷⁾ 그 명칭 가운데에 「林」자가 들어있는 점으로 보아, 天鏡林

34) 韓陽明, 1994, 「鄉村民의 風水地理的 空間認識과 對應方式-永嘉誌所載 安東邑地域의 裨保壓勝을 中心으로-」『安東文化』第15輯

성동환, 2000, 「마을과 절터입지의 풍수적 해석」『한국자생풍수의 새로운 모색』한겨레신문사

35) 물론 阿道和尚事蹟碑에 나오는 天鏡林에 대한 기사 가운데의 碑(裨)補가 시사하는 풍수지리의 裨補壓勝이 異次頓 시절에도 가능한 것인지, 阿道和尚事蹟碑 제작시기인 17세기에 새로이 추가된 것인지는 좀 더 검토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裨補壓勝의 기능이 후대에 추가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36) 註34의 문헌

37) 天鏡林이 고대에 河川邊에 입지하였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경주분지 일대에 관한 항공사진·인공위성사진의 판독과 그에 기초한 지형분류와, 시추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한 지형발달사적인 분석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지형학 분야에서의 연구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일제시대 간행된 경주지역의 지도에서 살필 수 있듯이 天鏡林비정지 일대의 논·밭, 垆地, 大小의 流路跡 등의 배치관계와 형태, 西川, 南川, 北川 모두가 선상지성 하천으로 流路변화가 심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2개소로 추정되고 있는 天鏡林의 위치가 현재의 天鏡林 史蹟地로 복원된 곳 이던 현 경주공고 자리 그 어느쪽이든 간에 河川邊 내지는 河川관련 微地形에 입지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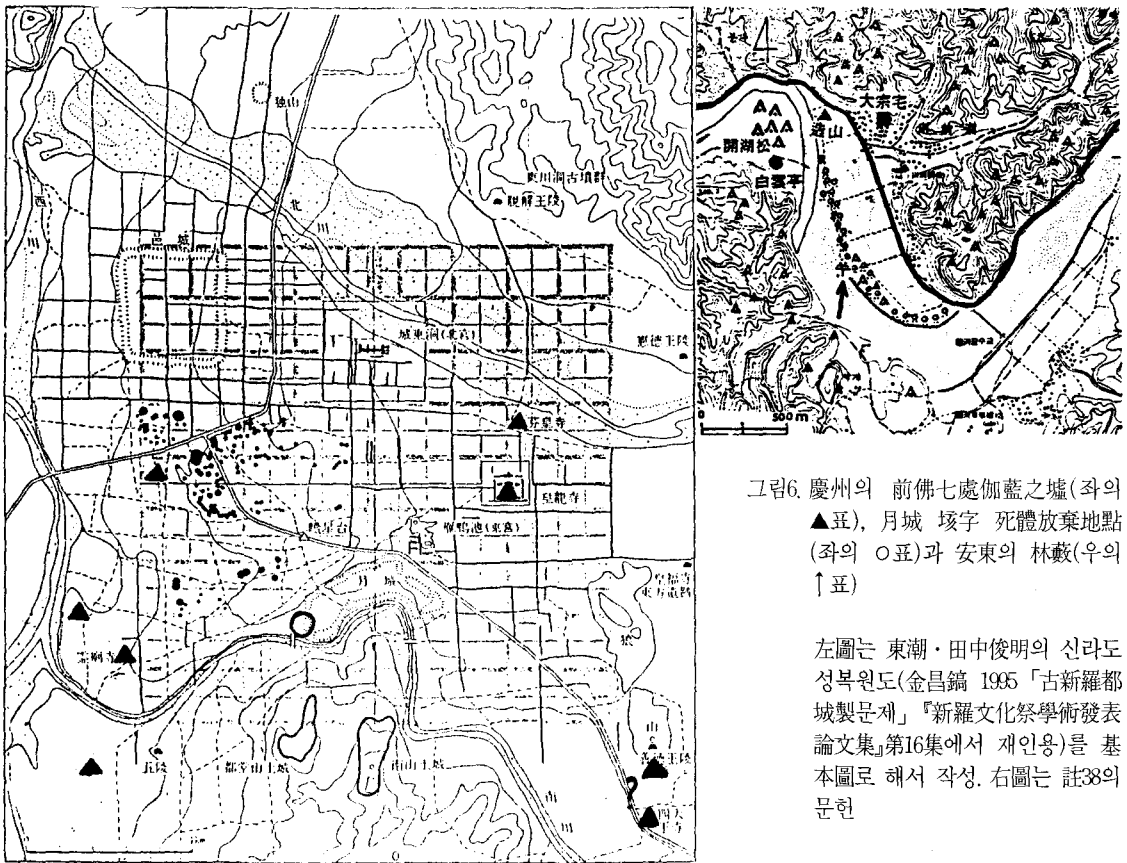


그림6. 慶州의 前佛七處伽藍之墟(좌의 ▲표), 月城 塚字 死體放棄地點(좌의 ○표)과 安東의 林藪(우의 ↑표)

左圖는 東潮·田中俊明의 신라도 성복원도(金昌鎬 1995 「古新羅都城製문제」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第16集에서 재인용)를 基本圖로 해서 작성. 右圖는 註38의 문헌

의 형태는 비보압승물 가운데에 하천변에 있는 숲이거나 우실(林藪)의 모습 내지는 그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와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면, 天鏡林의 구체적인 모습은 林藪(및 우실)을 통해 그려 볼 수 있을 것 같다.(그림6)

林藪는 달리 藪, 洞藪, 쭈, 돌밭, 솔담, 마을숲 등으로 불리는데, 마을 단위의 것도 있는 반면 더 큰 규모의 읍, 고을 단위의 것도 있다. 마을의 앞쪽 혹은 측면의 강변이나 평지, 낮은 언덕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을 가리킨다. 보통 “쭈”라고 부르며, 마을 단위로 조성된 것은 洞藪라 한다.³⁸⁾ 마을 사람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사람의 출입이나 벌채, 개간이 금지되는 경우가

38) 金德鉉, 1986, 「傳統村落의 洞 에 관한 연구-安東 내앞마을의 開湖松을 중심으로-」 『地理學論叢』第13號

많다. 林藪의 목적·기능에 대해서는 韓陽明(1994)³⁹, 金德鉉(1986)⁴⁰의 글이 참고가 된다. 한 양명은 林藪가 토착신앙, 풍수지리, 유교 등의 영향 아래서 인공적으로 조성되었으며 다차원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林藪는 수목송배라는 원초적 신앙형태와도 관련되는데, 神樹聖林이란 표현도 이런 관념 하에서 생긴 것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安東지역의 邑誌인 『永嘉誌』卷5, 林樹條에서는 林塘樹라는 숲에 매년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였는데 그러면 관속들이 잘된다고 적고 있어 林樹가 聖林的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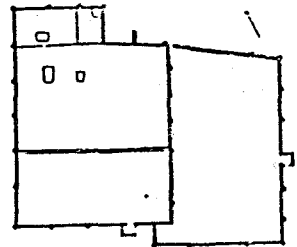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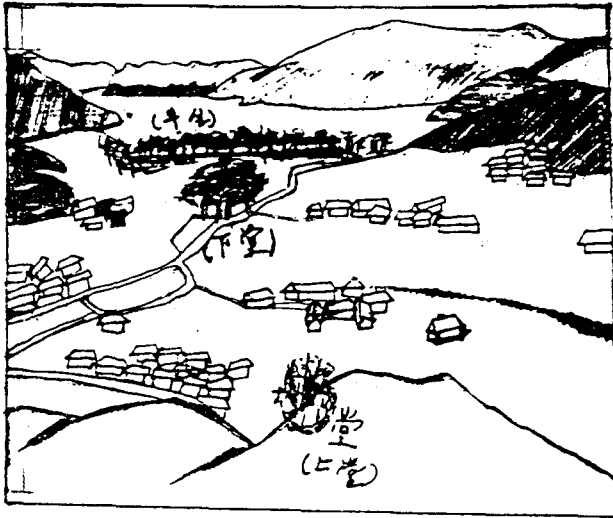
또 林樹는 풍수지리적으로 수구막이의 기능도 한 것 같다. 正租16년(1792) 洪良浩 編 『牧民心書』工典之屬 養山敷條에서는 「山澤者國之府庫 而林藪者邑之藩籬也 境內高山大澤 必定監官山直 而禁護之邑基 主案及凡水口養藪者 赤定守直俾禁薪樵」라 하여, 수풀은 고을의 울타리이므로 主山과 案山 그리고 水口에 수풀을 배양하고 지키는 사람을 두어 땔나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邑誌 林藪條에서도 林藪가 各邑과 洞里에 조성되고 마을을 둘러싸고(擁蔽), 터전을 지키거나(護基) 裨補한다고 하고 禁畵으로 보호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林藪는 풍수지리상의 得水局의 약점인 水口을 가리어서 生氣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吉局이 극대화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졌다. 또 수목의 식림을 통해 관념적 혹은 실제적으로 河川의 부정적인 水氣를 진압한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河川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 목적의 하나였던 것 같다.

한편, 林藪에서는 실제적인 기능도 있었던 것 같다. 經國大典에서는 川邊에 조성한 林藪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防水災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즉 林藪의 조성이 국가의 법령에 의해 명기되고 의무적으로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林藪의 실리적인 측면은 안동지방의 永嘉誌 林藪條에서도 엿볼 수 있다. 安東邑을 둘러싼 11개의 林藪는 栗材, 黍材, 柳木 및 雜木으로 구성되며, 邑 남쪽을 흐르는 낙동강 본류나 지류변에 조성되어 있다. 기능은 홍수로부터 邑을 지켜주거나 地形의 凶狀을 막는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防風, 防沙의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12개의 林藪는 松, 楮, 黍, 雜木으로 擁蔽, 水口, 防川, 塞 등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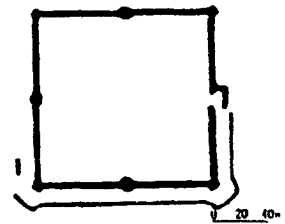
또 林藪는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큰 經濟林이기도 하였던 모양이다. 특히 林藪를 구성하는 주요 수종의 하나인 소나무는 메마르고 비옥치 못한 토지에서도 잘 자란다. 또 소나무 수풀에는 下床植物이 적고 벌레·뱀 등이 없어 무덤이나 마을 주변에서 많이 심어왔다. 뿐만 아

39) 註34의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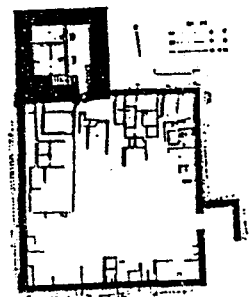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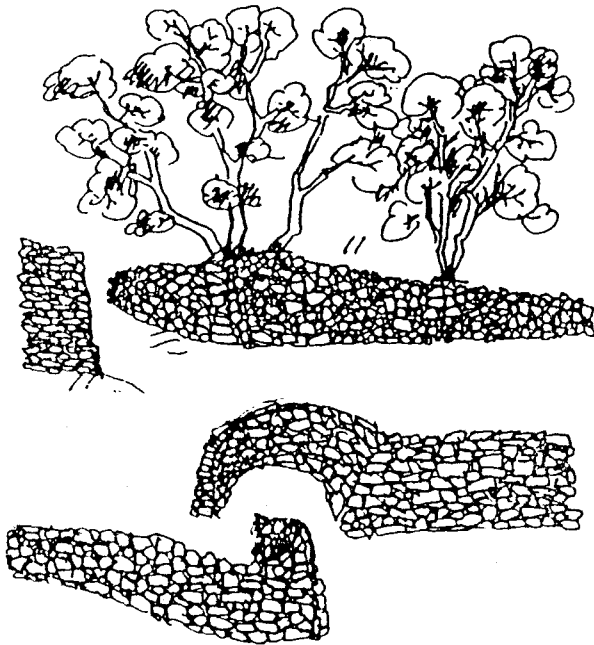
40) 註38의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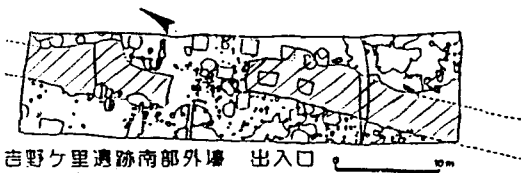
三道營古城



馬力吉高勒城障遺跡



甲渠侯官遺跡



吉野ヶ里遺跡南部外壕 出入口

그림7. 우실 및 그 출입구(좌상·좌중, 註42의 문헌)와 일본·중국의 環壕·城郭遺蹟의 출입구(좌하·우, 註43의 七田忠昭 문헌)

니라 소나무는 건축재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며, 食用樹로서 救荒기능까지 하였다. 그래서 소나무는 松栢百木長也라 불리울 정도로 경제적 이용가치가 컸었다한다. 그래서 고려시대 이래로 禁畵으로서 보호해왔고,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禁松이 시행되었으며, 『經國大典』에 의하면 매년 봄에 松을 심고 특별보호지역으로 정하여 보호하였다. 安東의 開湖松(林藪)에 관한 宗家之書⁴¹⁾에서도 開湖松내에서는 떨어진 솔가지까지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을 금했다하며, 소나무의 私的이용을 금하고 宗家用途에만 쓰도록 한정시켰거나 枯木 25株를 팔았다든지, 開湖松의 松을 넘보는 일이 많아졌다는 등의 기사가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林藪는 민간신앙의 聖所的 기능, 풍수지리의 裨補壓勝의 기능 뿐만 아니라, 防水災, 防風, 防沙, 그리고 經濟的 利用面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거의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우실(村垣)이라 불리는 것이 있다.⁴²⁾(그림7) 전남해안일대를 중심으로 잔존하는 우실은 마을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마을 출입구의 郊關이나 허한 곳에 土牆, 石垣 또는 수목을 조성하는 부분우실(앞서의 林藪도 외형상은 이와 동일)과, 마을 전역을 감싸는 전역우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실에 있는 門이나 우실의 평면형태도 상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우실의 門은 마을의 주신이 있는 鎭山의 上堂과 통하고, 下堂의 신단이나 神樹와 이어지는 神路의 門이며, 神들이 돌아가는 출구이다. 이런 관계로 마을의 제사인 당산제도 우실의 문굿에서 시작되며, 外地에서 시신이 들어오거나 호상이 아닌 상여는 출입이 금지된다.

우실의 평면형태도 다양하나 특히 外界와 통하는 출입문이 중간부위에 설치되어 內界와 外界가 서로 볼 수 없도록 되어있다.⁴³⁾ 이 때문에 우실이 세워지는 곳은 마을과 마을의 경계, 마을로 통하는 고개마루, 마을 입구 등이며, 경계영역의 표식물 기능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실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聖과 俗의 神塚的이 경계담이며, 세속 異人의 출입을 통제하며, 재액과 역신을 차단하는 경계의 방벽이며, 동시에 내부세계와 외부세계로 연결시켜주는 통로이며, 내적규범을 統御하고 독립성을 담보하는 마을의 열쇠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우실의 현

41) 註38의 문헌

42) 崔德源, 1990, 「우실(村垣)信仰」『南道民俗學』삼성출판사

43) 註42의 문헌

그런데 그 門의 평면형태가 최근 조사된 일본의 환호취락의 출입구시설이나 중국의 성벽의 그것과 닮아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七田忠昭, 1997, 「有名海岸地方の彌生時代 環壕集落にみる大陸的要素(豫察)」『佐賀考古』第4號

「마을 수호山」에 종교시설 건립 갈등

울산=鄭在洛기자

「마을 주민들이 수호신으로 받들던 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미신이나, 미풍양속이나」.

울산시 울주구 농소읍 호계리 수성마을 주민들은

조상대로 수호신으로 모셔온 산에 최근 특정 종교단체가 산을 깎아 종교시설을 건립하려한다며 24일 오전 울주구청에 물려가 건축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울주구청이 95년 12월 종교시설 건립허가를 내준 곳은 호계리 산59의 2 일대 4백90여평. 이 산은 호랑이가 엮드린 모양을 하고 있어 예로부터 인근 수성마을(2백여가구)주민들이 「범등」이라 부르며 산아래

제당에서 매년 정초에 제사를 지내는 등 수호신으로 모셔온 곳이다.

그러나 종교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이모씨(56·개신교장로)는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며 지난해 3월28

일부터 종교시설로 통하는 교량공사를 강행했다.

그후 주민들은 「교량공사를 착수한 다음날 공사현장 부근에서 놀던 5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고 한 달뒤에는 주민 김모씨(34)가 식중독으로 숨

지는 등 마을에 재앙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장에 천막을 치고 공사를 방해했다.

울주구는 교회건립 예정지를 주민들이 공동 매입하도록 주선하는 등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울산 수성마을 재앙 잇따라 교회측 중단요구 “미신”일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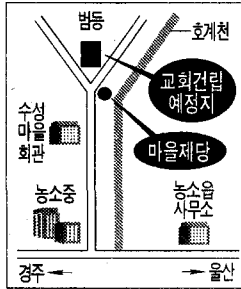


그림8. 기존·新來의 신앙·종교간의 갈등사례(東亞日報 1997년 2월 25일자)

실적인 기능으로서는 은폐, 防風, 防沙, 防鹽, 해적과 짐승침입 방지 등이다.

이상에서 보아, 天境林은 西川邊에 위치하는 天神의 祭場이면서 동시에 비보압승물의 한 유형인 林藪나 우실의 형태인 숲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풍수지리의 裨補의 기능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天神의 祭場이자 비보압승적 산물인 天鏡林에 대해 신뢰감을 가져온 在地民 내지는 관계세력에게 있어서 天鏡林을 파괴하고 異宗教인 불교의 사원을 건립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저항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기존과 新來의 신앙·종교간의 交替나 混在하게 됨으로서 비롯되는 갈등은 비단 고대의 天鏡林의 예뿐만 아니라 지금도 민간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그림8)

그런데 이상과 같은 정리를 통해 더욱이 다음과 같은 점도 상정 가능하다고 본다. 天鏡林에 불교사원을 건립하려는데 대해 반대한 것은 그곳이 전통적인 고유신앙의 聖所로, 불교공인 이전부터 이미 天鏡林을 그들 자신의 지역사회나 거주구역을 풍수지리적으로 보호해주는 상징물(비보압승물)로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비보압승물이 세워지거나 비보압승지로 인식되는 곳은 상징적인 경계장소인 경우가 많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天鏡林, 더 나아가 前佛七處伽藍之墟의 전부 내지는 일부가 소위 條坊制 王京 성립이전부터 신라인에게 인식되어 왔던 王京 혹은 王京內의 中樞領域의 內와 外를 구분지우는 경계에 위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추정은 三國遺事 卷3 阿道基羅條에 이들 前佛七處伽藍之墟가 京都內에 있다는 기사와 모순되지 않는다.

한편, 신라의 불교공인 전후를 전하는 문헌기록 가운데에는 사원(흥륜사의 정사)를 짓는데 천경림의 나무를 벌채해 썼다는 기사 또한 주목된다.⁴⁴⁾

(法興王)二十一年 伐木天鏡林 欲立精舍掃地得柱礎石龕及階陛 果是往昔招提舊基樑棟之用皆出此林 工歸告畢 (海東高僧傳 流通1 法空條)

이는 천경림이 사원건립에 사용할 수 있는 良質의 목재를 공급할 수 있는 樹林을 이루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天鏡林이 비보압승물의 한 유형인 林藪나 우실과 같은 숲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일 그러하다면, 이 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추정은 성립할 수는 없을까. 즉 당시의 왕, 사원측이 사원 건립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기존 고유신앙의 聖所로서의 상징성이 이미 타파되고 난 뒤의 天鏡林이 사원건립 등에 필요한 良質의 목재를 공급할 수 있는 經濟林이라는 실리적인 측면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까. 실제로 6~7세기 무렵의 경주에서는 여러 사원들이 건립되거나 月城 동쪽의 新宮건설(576년) 등, 대규모 건축·토목 공사가 활발하였던 듯하다.⁴⁵⁾ 이에 따라 이들의 건축에는 많은 목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고고학의 발굴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경주시의 중심부가 된 扇狀地面은 이전부터 거주지·농경지·墓域 등으로 이용되어왔다. 또 선상지 하천인 北川의 범람과 유로변경 등으로 植生이 상당부분 파괴되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사원·궁궐·관청 등의 건축에 소요되는 기와·전·일상생활용 土器의 생산에 필요한 연료로서, 일반가정의 연료와 농공구 제작용재로서, 그

44) 註33의 문헌

45) 金在弘, 1995, 「신라 중고기의 低濕地 개발과 촌락구조의 개편」 『韓國古代史論叢』 제7집 2001, 『新羅中古期 村制의 成立과 地方社會構造』 서울 大學校 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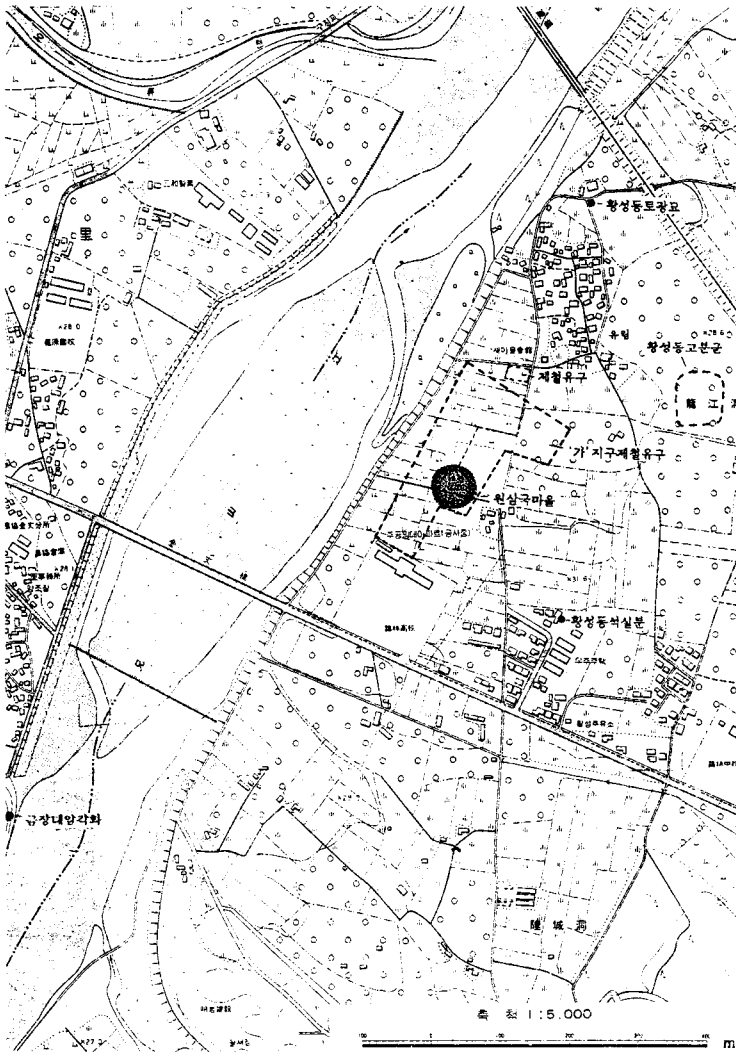


그림9. 慶州 隍城洞 製鐵 遺蹟(●표)과 그 주변 유적(註47의 문헌)

로 일정지역의 산림 혹은 목재 공급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경주 狼山에 대한 聖所지정과 함께 내려진 벌채금지기사(三國史記 實成尼師今代)도 이러한 맥락에서 음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동시에, 산림자원의 고갈에 따라 산림 혹은 목재에 대한 소유권이나 用益權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전부터 사람의 출입이나 나무의 벌채 심지어는 그 숲에서 나오는 임산자원의 채취나 반출조차도 금지시키면서 보호해오던 天鏡林의 良質木材를 사찰건립에 따른 국가 혹은 사원측의 독점 내지는 탈취에 대해 기득권세

리고 하천범람·지진·화재 등에 의해 소실된 건물과 가옥의 재건축을 위해 산림은 더 더욱 고갈되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경주분지의 山野는 원래 표토가 얇은 데다가 화강암 지역이라서 일단 산림이 벌채되면 그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또 경주의 주하천인 서천·남천·북천은 평소에는 流量이 적고 大雨時에만 범람하는 선상지하천이라서 타지로부터 목재를 운반해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경주분지 내에서는 특히 사원·궁궐·관청 등의 건축에 필요한 良質의 목재를 입수하기가 곤란했을 것으로 상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에서는 국가·왕실·귀족 계층·지역사회는 그 나름대로

력의 반발은 당연 예상되기 때문이다.

5) 匠人集團의 集居地로서의 河川邊

慶州 皇城洞 遺蹟은 北川과의 합류점 부근인 西川邊에 위치한 三韓時代(原三國時代)의 製鐵관련집단의 유적이다.(그림9) 이 유적은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의 결과, 제철관련 유구, 수혈 건물지, 분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00여기의 용해로가 가동되었으며, 상당량의 주조철부와 단조철기의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유적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식의 발굴조사 보고서 간행을 기다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이 황성동 제철유적과 관련해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이다. 황성동 제철 유적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보면⁴⁶⁾, 제철관련 유구의 集中化와 大規模化의 배경으로서 권력에 의한 관할 통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연성은 인정되더라도 유적형성초기단계부터 과연 그러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남는다. 황성동 제철유적에서 나타나는 제철관련유구의 집중화와 대규모화는 결국 삼한시대(원삼국시대) 전기간에 걸친 누적적 결과이며, 유적의 단계설정 또한 토기를 비롯한 출토유물의 편년에 주로 기초한 것이다.(그림10)

그런데 토기형식 편년상의 「同時期」는 그 자체에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단계로 설정된 제철유구 모두가 동시구축·동시가동이며, 제철유구의 집중화, 대규모화라는 도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제철유구간의 「同時存在」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황성동 제철유적관련의 원삼국시대 전기의 수혈건물지 간에는 중복관계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중복 건물지 간에는 선구축의 건물지의 폐기와 후구축 건물지의 구축이라는 과정중에 선구축 건물지의 매몰이라는 시간이 존재함을 말한다. 따라서 황성동 제철유적의 수혈 건물지 및 제철 유구는 토기형식 편년에 기초한 설정 단계보다도 더 많은 단계로 세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황성동 제철유적에서는 몇 기의 제철유구로 구성되는 단위가 어느 정도의 시간폭을 가지면서 차례로 구축·가동·폐기가 되풀이 되어왔다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황성동 제철유적에서는 초기에는 하천변의 砂鐵을 원료로 하는 소규모 철기 생산형태를 띠다가 3세기 무렵에 와서야 鐵鑛石을 원

46) 皇城洞遺蹟發掘調查團, 1991, 「慶州皇城洞遺蹟第1次發掘調查概報」『嶺南考古學』8.

孫明助, 1997, 「慶州皇城洞製鐵遺蹟의 性格에 대하여」『1~3C慶州地域의 遺蹟과 文化』1997年度 第16回 新羅文化學術協會



그림10. 慶州隍城洞 製鐵遺蹟의 空間構成(좌, 註46의 孫明助 논문)과 遺蹟의 遺構配置圖(우, 註50의 문헌)

료로 하는 대규모 생산형태로 전환해갔다는 金世基의 연구⁴⁷⁾도 크게 보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싶다.

만일 이와 같은 추정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유적의 형성초기 단계에는 소규모의 제철집단이

47) 金世基, 1994, 「隍城洞原三國聚落址의 性格」 『마을의 考古學』 韓國考古學會 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發表要旨

그 자유의지에 따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集居地를 이루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쪽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⁴⁸⁾ 그리고 이러한 정황설정은 匠人集團의 성격과 그 集居地인 하천변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경계성의 문제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민속지리학의 森栗茂⁴⁹⁾에 의하면 장인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정착 장인으로, 皮革匠인이 그러한 예이다. 가죽 무두질에는 풍부한 물과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성격상 피혁장인은 주로 하천변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집단은 대개 국가나 지방호족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다.

또 하나는 流浪하는 장인으로, 鑄物·鍛冶장인, 의사, 생선장수, 목수, 금속세공공 등이 있다. 이들 장인들은 流浪이 본질이나 때로는 하천변 등에 정착해 사는 부류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하천변에 성립한 시장 등에 정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황성동 제철유적의 형성초기집단도 이러한 상황하에서 자연스럽게 하천변에 集居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신분적인 계층분화가 진행되면서 이들 직업 자체는 늘 천한 것, 不淨한 것으로 경시되고 차별을 받았던 모양이다. 7세기대의 철기제작집단 구성원인 「釜谷治家之女」가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았던 점(三國史記 권46 열전6 強首)은 이를 방증하는 것일 것이다.⁵⁰⁾ 직업 그 자체에 대한 천시뿐만 아니라, 하천변은 불안정한 장소여서 대개는 無主人 경우가 많았고, 그곳이 不淨한 장소로 인식되는 상징적 경계장소였던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II. 맺 음 말

이 글에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관념속에 밀착되어 온 장소의 상징성·경계성에 주목하면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고대의 유적 및 고고학적 현상의 일부의 성격과 배경의 일단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신라의 왕경이었던 고대의 경주지역에는 왕경으로 인식되고 條坊制 등과 같이 새로이 채택된 고대적 도시요소 이외에, 이전의 사회에서부터 계승되어져 온 原空間的要素로 생각되는 것

48) 물론, 황성동 제철유적의 형성초기단계라 하더라도 재련·단야공정에 필요한 물, 점토, 砂鐵의 확보, 그리고 交通의 結節點에 위치해 연료인 숯의 반입과 생산된 철제품의 반출에 유리한 공업입지론상의 이점이 유적입지의 주요배경의 하나였던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49) 森栗茂一, 1990, 『河原町の民俗地理學』弘文堂

50) 權五榮, 1990,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서울 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이 있다. 月城 塚字의 死體放棄, 天鏡林을 비롯한 前佛七處伽藍之墟, 製鐵관련 匠人集團의 集居地인 皇城洞 製鐵遺蹟 등이 그러하다.

慶州의 月城塚字에서는 많은 인骨이 출토되었으며, 『三國史記』등의 문헌자료와 아울러 살펴 보면 고대의 우리나라에서는 死體放棄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는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근년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고, 의외로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행해졌음도 확인되었다. 死體放棄의 장소는 塚字(溝), 河川邊, 연못 등 그 모두가 상징적 경계장소로 인식되어져 오던 곳인 점이 주목된다. 死體放棄의 대상은 무연고자, 기아에 의한 아사자, 빈곤한 사람, 전염병 사망자, 전사자, 정변 희생자 등이었으며, 특히 빈곤계층은 死體放棄의 주 대상이었던 것 같다. 한편, 이러한 死體放棄는 日本의 古代~中世에도 확인되는데 크게 보아 北方系狩獵民의 문화전통으로 알려지고 있다.

『三國遺事』阿道基羅條에 보이는 前佛七處伽藍之墟의 하나인 天鏡林은 기존의 견해대로 天神의 祭場임과 동시에, 林藪나 우실(村垣)과 같은 숲의 형태였으며 풍수지리의 裨補관념이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天鏡林에의 사찰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명분인 종교적 측면 이외에도 현실적으로는 天鏡林의 良質木材에도 강하게 의식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天鏡林을 포함한 前佛七處伽藍之墟가 당시의 왕경내에서도 중추공간과 그 주변부를 한정지우는 상징적 경계일 가능성도 고려해 보았다.

皇城洞 製鐵遺蹟은 발굴조사 성과에서 나타난 형성과정과 민속학 분야에서의 양상에서 보아 적어도 유적의 형성초기단계에는 소규모 집단이 자유의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河川邊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정착의 무대인 하천변은 불안정한 장소여서 無主人 경우가 많았는 데다가 그 장소가 不淨한 장소로 인식되는 상징적 경계장소였던 점도 입지 배경의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글을 작성하는 데에는 인하대학교 서영대 교수님, 카톨릭대학교의 염정섭 선생님, 경주대학교 박물관 한도식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01. 4. 7. 稿了)

Symbolism · Boundary of pla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rchaeological sites

Kwak, Jong-Cheol

I intend to show that if we pay attention to the symbolism and boundary of places which are associated with our daily lives, this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the ancient sites, archaeological phenomenas.

I will give as examples Sachaebungi(死體放棄), as has been found in the Wolsunghaeja site in the ancient Kyoungju region; and Chungkyoungnim(天境林), which is the sanctum of traditional religio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temples; and the Hwangsungdong site(隍城洞遺蹟) which we assume that a small group of people, by their free will, naturally made a settlement near a stream in the beginning step of the formation of site.

I think the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it's sites and archeological phenomena, is deeply related with the concept of the riverside as the symbolic boundary between the sacred and profane, and purity and impurity.